

건강 칼럼

건강 수명 시대, 골수줄기 세포 치료의 활용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얼마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롱제비티(Longevity) 트렌드가 의료·헬스케어 전반에 확산되면서 줄기세포 재생 치료 역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트렌드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이른바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만성질환, 관절 퇴행, 신체 기능 저하 등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고 신체의 회복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재생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수줄기세포 치료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료법 중 하나다.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체



박 기 범
사적인 아름다움
자유의원 셀로라 대표원장

가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수줄기세포 치료는 자신의 세포를 활용해 조직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최근 롱제비티 의료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골수줄기세포 치료는 환자 본인의 골반뼈에서 채취한 자가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염증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한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골수 내 줄기세포의 수와 활성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한 뒤 농축·정제 과정을 거쳐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는 것은 신체의 회복 기능을 보완하는 재생의학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질환 치료뿐 아니라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관점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심리온벨리를 중심으로 확산된 롱제비티 의료는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신체 기능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는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세포 노화의 진행을 늦추거나 기능 회복을 돕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면서 단순 통증 관리나 피부 개선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과 재생 능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세대를 중심으로 골수줄기세포 치료에 장기적인 건강관리의 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롱제비티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건강관리의 새로운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기능과 회복 능력을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다. 골수줄기세포 치료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생의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치료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골수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적용 부위 등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 전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고문

생명을 살리는 몇 분의 배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출퇴근길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몇 분간 꼼짝하지 않는 신호로 답답한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중대한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긴급차량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다. 단 1분의 차이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고, 재난의 규모를 크게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해당 진행 방향의 신호를 일시적으로 녹색으로 바꾸거나, 기존 신호 주기를 조정해 긴급차량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장치라 아니라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교차로에서의 충돌 위험을 줄이며, 무엇보다 위급한 시민

에게 더 신속히 도달하기 위한 생명 안전 시스템인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 일반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입장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 흐름으로 인해 잠시 혼란이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진행하던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시민께서 느끼시는 그 불편이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긴급차량이 서둘러 지나가는 그 몇 분은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차로 앞에서 시민 여러분이 잠시 양보해 주신 몇 분의 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되찾는 결정적인 시간이 된다. 실제 전북소방에서는 2026년 1분기



임 채 화
덕진소방서
구급팀장

에 550여 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균 6분 47초, 출동시간의 40.6%를 단축하였다. 이런 효과에 기반하여 우선신호시스템이 없는 외곽 시군 119구급대에서 긴급환자를 전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할 때 시스템을 장착한 구급차량이 병원까지 에스코트해 주는 권역연계 출동을 강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안전서비스

라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제나 긴급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지금은 양보하는 시민의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가족, 이웃, 혹은 나 자신이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길을 양보하고, 평소와 다른 신호 흐름이 나타날 때 잠시 멈추어 기다려 주는 작은 실천이 모여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불편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는 단순한 양보를 넘어,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생명존중의 실천인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몇 분의 배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설

한국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 젠슨 황

방한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대기업 총수들과 한국 의 뜨거운 금요일 밤을 즐겼다. 최근 삼겹살 회동에 이어 2차로 치킨집까지 찾았다.

엔비디아의 네 가지 사업을 공개하며, 한국을 위한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서울 흥대입구의 한 치킨집 앞에는 마치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나타난 듯, 인파가 구름떼처럼 몰렸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집 저녁에 이어 근처의 치킨집을 2차로 찾은 것이다.

황 CEO는 평소 "한국식 치킨을 좋아한다"고 자주 말했는데, 2차에는 아내와 딸, 예비 사위까지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시민들과 팬미팅 같은 시간도 가졌다. 삼겹살 회동 중엔 총수들과 밖으로 나와 시민들에게 고대역폭메모

리 HBM을 분돈 과자와 바나나유 등을 나눠줬다. 그러면서 한국을 위해 준비했다던 깜짝 선물을 공개했다.

AI노트북과 AI슈퍼컴퓨터 등 내년엔 나올 엔비디아의 신제품 4개가 선물이라는 건데, 이들 제품 출시에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삼겹살집에선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페이'의 인본 인식으로 다른 시민들 뚝까치 모두 계산해 눈길을 끌었고, 치킨집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다른 손님 주문까지 모두 결제했다.

흥대 앞 식당엔 며칠 채 긴 줄이 늘어났다. 치킨집엔 젠슨 황이 앉은 자리에 벌써 예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젠슨 황은 이아 잠실야구장에서 홀탑인 두산 베어스 시구자로 나섰다.

어느 두 번 제명 4선 기초의원

동료 여성 의원의 불륜 스캔들, 옛 연인 폭행·스토킹 사건으로 두 차례 제명됐던 전북 도내 어느 시의원이 새간의 부정부패를 뚫고 4선 고지에 올랐다.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과 맞붙은 어느 지역에서 2582표(21.38%)를 얻어 당선됐다.

각각 5338표(44.21%)·2559표(21.19%)를 기록한 현역 시의원 두 후보와 함께 시의회에 재입성했다. 민주당 일색인 9대 시의회 14명 의원 가운데 유일한 무소속이자 최다선 의원이 됐다.

2023년 12월 어느 날 한 마트에 서 당시 시의원이 여주인 A씨 허리를 잡아 억지로 질질 끌고 갔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스톱카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

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았다. 민주당 탈당 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2024년 4월 4선 만에 또 제명됐다.

경찰이 같은 해 1월 과거 교제하던 여성에 대한 폭행과 스톱카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지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